

# 강임준 군산시장, 중앙부처 방문 예산 확보 총력

사업 필요성·시급성·연차별 국비 반영 요청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 호소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오가며 발 빠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강 시장은 내년 정부예산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29일 현안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설득과 지원요청 활동을 벌였다.

이번 중앙부처 방문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9.7% 증가한 470.5조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군산시 경제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차별 국비 반영을 요청하기 위한 방문이다.

주요 검의사업으로는 청년(예비)농업인 경영실습·스마트팜 조성(300억 원), 군산 스마트 로지스틱센터 건립(100억 원),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52억 원) 등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취임 이후 지역의 어려움을 직접 호소하고 정부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국회단계를 앞두고 미진사업과 관련해 각 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기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



경임준 군산시장은 내년 정부예산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29일 현안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설득과 지원요청 활동을 벌였다.

한편 군산시는 파탄위기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예산심의 과정까지 시와 정치권간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정현율 익산시장이 29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 정현율 익산시장, 행안부 찾아 특별교부세 확보 위해 ‘발품’

주요현안사업 설명·총 38억원의 특교세 지원 요청

정현율 익산시장이 29일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이날 정 시장은 행정안전부 심보군 차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현재 익산의 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제2산단 환경개선사업 10억 원, 미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13 억 원 등 총 38억 원의 특교세 지원을 요청했다.

익산 제2산단 환경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인도를 정비해 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 기업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 등으로 2018 전국체전대비 시기지 환경정비 사업 등 48 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군산=우병희기자

## 행복도시 군산, ‘복지가 답이다’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올해 10회를 맞는 군산 희망복지박람회가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은파호수공원 조경휴게소(은교회 밀 풋살경기장 옆)에서 열린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희망복지 박람회는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 복지가 답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민관이 협력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해 복지를 몸소 체험하고 알아가는 장으로 펼쳐질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보건·의료, 자원봉사, 사회공헌, 일자리, 지역복지, 공공기관 등 50여개 기관의 홍보·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이밖에도 복지 골든벨 런닝맨 미션,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적기업의 생산물품 전시관, 무대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인기 개그우먼 조혜련씨를 초청해 함께해요! 토크 콘서트를 마련해 군산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제도 및 서비스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2018 군산시 희망복지박람회를 빛깔없이 준비하겠다”며 “앞으로 부스 운영 및 행사 진행으로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 군산시, 여성가족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

###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서 한인 협력강화 ‘결실’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9일 강원도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8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에서 국내외 한인 여성의 협력강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돼 올해 18회를 맞은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는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 정착의 길’, KO WIN이 암장서 간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전 세계 58개국에서 기업,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 국내외 지도자와 한인여성들이 모이는 핵심 네트워크로 단순한 친교를 넘어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는 장(場)이 되고 있다.

한편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제17회 대회를 개최한 군산시는 KO WIN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리더들의 국제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산시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8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KOWIN) 대회는 여성이족부, 강원도, 속초 공동주최로 29일부터 31일까지 속초에서 개최되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평화분위기에 밀접하게 병등을 통한 진정한 평화’라는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전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한다.

/군산=김정훈기자

## 원광대병원, 대미 대한체육회와 업무협약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27일 대미 대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해외 환자 유치의 일환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최첨단료

이번에 미주지역 체육회와 맺은 업무 협약은 익산에서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에 미주 지역에서 200명 이상 규모의 재미동포 선수단을 파견 할 예정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원광대 병원은 미주지역 한인회 및 미주지역 병원들과 MOU 등을 통해 전라북도와 함께 대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원광대학교병원 관계자는 “건강검진 프로모션을 통하여 신규 환자를 침출하고 나아가서 전북도 권역의 대외 환자 유치가 증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광=우병희기자

이어거리, 신송사거리에서는 군산사랑상품권 홍보 현수막을 펼치고 가맹점 기업 및 상품권 구입 안내문을 나눠졌으며, 또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시범 실시중인 자전거 안전모 쓰기 등 자전거 안전운행 규정도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인수 건설교통국 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조석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9월 3일 최초 발행되는 군산사랑상품권을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과 함께 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